

“학생이 주도하는 ‘미래교육’ 실현에 전력”

●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새해에는 ‘함께 하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신념으로 학생이 배우의 과정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실천하는 ‘미래교육’을 펼치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장 교육감은 “올해는 학생 주도교육을 확대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면서 “교과통합교육과정에 주제중심 문제 해결 활동을 집중 편성해 학습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언제 어디서나 학생이 자기 주도로 대면·비대면 연계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미래이음학교’(광주형 스마트스쿨) 34개교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교육기술(edu-tech)을 활용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는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학생이 주도적으로 기획하는 주제 중심 학습 운영을 위해 교육용 정보화 기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원격교육으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맞춤형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실시하기로 하고, 맞춤형 기초학력 진단, 향상도 검사, 보정 자료를 개발해 운영할 방침이다. ‘학교 안전망’ 구축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장 교육감은 “코로나19로부터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키내기 위해 일상 방역에서 마을 방역까지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하겠다”면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에서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현장지원팀·방역대응팀·학교지원팀’을 순차적으로 지원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배움터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면·비대면 ‘광주형 스마트 스쿨’ 34개교 운영
방역망 강화·민주시민·문화예술 활성화 등 주력
기후위기대응실천단·채식급식 등 환경교육 진행

그는 “기후환경협력팀”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학교 환경교육을 진행하겠다”며 “특히 ‘기후위기 대응 학생·교사 실천단’을 운영하고, 채식선택 급식을 시범 운영하는 한편 ‘학교 햇빛 발전소·에너지 전환 학교 협동조합’ 설립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민주시민교육과 문화예술교육 강화에도 적극 나서 ‘민주시민교육 프로젝트’를 통해 교육과정과 삶이 연계된 민주시민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5·18교육 전국화를 위해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온라인 민주시민교육 나눔터’와 ‘5·18사이버기념관’을 구축해 활용하기

로 했다. ‘광주학생예술누터’를 설립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연결망을 구축하고, 문화예술 체험 상설 교육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광주중앙도서관을 리모델링해 미래형 청소년 특화 도서관으로 재개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장 교육감은 “광주형 친환경 미래학교 구축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스마트스쿨’과 연계해 광주 미래교육을 위한 선도학교로 운영한다”면서 “인공지능 공동교육 과정 확대, 2024년까지 ‘미래형 정보실’ 48개교 구축, 북구 자연과학고 부지 내 ‘인공지능 체험센터’ 설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장 교육감은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자치 활동도 강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학교자치시범학교를 운영하고, 학교자치 복합 공간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직원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교직원회를 구성하고, ‘학교자

율감사제’를 도입해 학교의 자율권을 보장하겠다”면서 “교육과정과 수업·평가에 대한 교사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빛고을교사지원센터’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장 교육감은 “코로나19 시대에 학교가 안전한 배움터가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와 더불어 고민하고, 나아갈 방향을 함께 찾아내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새해 광주교육은 ‘사람과 희망’을 잇고, ‘사람과 배움’을 잇고, ‘현재와 미래’를 잇고, ‘너와 나’의 사이를 이어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그려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최권범기자

“대전환 시대 선도 ‘사람 중심 교육’ 실천”

●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세계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앞당긴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직면해 있다”면서 “2021년 새해 전남교육은 그 시대정신을 앞장서 실천해 ‘사람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고, 위기에도 흔들림 없는 ‘지속가능한 미래교육의 원년’을 만들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장 교육감은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탄탄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남교육이 희망이 되고 새로운 표준이 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장 교육감은 “무엇보다 기초학력 책임교육으로 배움의 기초를 탄탄히 하고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키우겠다”며 “디지털 전환에 대비한 미래형 에듀테크를 구축하고, 온·오프라인을 병행하고 혼합하는 수업의 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자율과 책임의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고 ‘모두가 주인공’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며 “대규모 감염병 ‘상시위기대응시스템’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또 평화 감수성과 공존의 가치를 키우고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한 생태환경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장 교육감은 학교현장을 중심으로 둔 뜻과 정열한 행정 구현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수업혁신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교육 원년’ 조성
통합운영학교 육성·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 중점
감염병 상시위기대응시스템 강화 등 안전망 구축

그는 “도교육청과 산하의 방만한 조직을 재정비하고 인사제도의 혁신을 멈추지 않겠다”면서 “교육지원청의 위상을 강화해 학교 지원 기능을 확대하고, 교직원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민주적인 조직문화 조성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신뢰받는 도교육청이 되겠다”고 말했다.

지속가능한 전남 미래학교를 육성해 작은 학교를 살리는 데도 힘을 쏟는다.

장 교육감은 “초·중·중·고 통합운영 학교 및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적극 육성하겠다”며 “작은 학교의 강점을 살린 ‘농산어촌 유학프로그램’ 운영으로 작

은 학교와 마을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농산어촌 유학프로그램’과 관련해 “도시 학생들이 전남의 소규모 농산어촌 학교로 유학 오면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생태 환경교육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전남 학교들도 활기를 되찾고 경쟁력이 높아지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자신했다.

장 교육감은 소통과 협력의 교육자치 구현을 위해서는 학부모와 지역민의 학교교육, 지역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고 학생자치와 교직원 회의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또 마을교육공동체를 확장하고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자치와 협치가 살아 숨 쉬는 전남교육 생태계를 구현할 방침이다.

장 교육감은 “전남의 교직원과 학부모님들이 낱줄과 씨줄이 돼 우리 아이들

의 ‘꿈’을 엮어준다면 아이들은 찬란한 미래로 향한 날개를 활짝 펼치게 될 것”이라며 “전남교육은 당장의 가시적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아이

들을 삶의 주인으로 우뚝 세우는 일부터 챙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지만, 어둠이 길수록 새벽은 빛나게 다가온다”면서 “위기 상황이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학교 변화의 출발점이 되도록 새해에도 더 큰 힘을 모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장 교육감은 “취임 이후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육’이라는 신념 속에서 줄곧 전남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강조해왔다”면서 “새해에도 변화·혁신의 발걸음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범기자

시교육청, 겨울방학 심리방역지원 강화

코로나 대응 학교 심리·상담지원 방안 마련

광주시교육청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겨울방학 중 심리방역지원을 강화한다.

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 등 다양한 위험요인으로 상담 학생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우울감을 호소하는 학생이 늘어남에 따라 방학 중에도 심리·상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시교육청은 심리방역지원 강화 방안으로 학교 내 심리방역지원단을 구성해 대상·상황에 따른 교육 및 상담을 실시토록 했다. 또 담임교사의 경우 방학 중

에도 SNS, 전화 등을 통해 학급 학생들의 심리건강을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는 등 상담지원체계를 유지토록 했다.

학교 위(Wee)클래스에서는 학급에서 지도하기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위(Wee)클래스 중심 상담 및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한다. 우울감, 또래 대인관계 등에 대한 개인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또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외부 전문상담기관 및 상담방법에 대한 안내를 실시한다.

위(Wee)센터에서는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 고위험군에 속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수상담을 지원한다. 특히 겨울방학 중(1-2월 중)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해 ‘마음 똑똑!’ 심리검사 주간을 운영한다. 심리검사는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코로나 블루 및 신학기 준비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심리검사 등 다양한 유형별 검사를 실시한다.

또 광주학생마음보듬센터에서는 상담, 심리검사·평가뿐만 아니라 고위험군 치료 연계 및 치료비 지원, 감염병 발생 시 핫라인을 통한 심리상담 지원을 실시한다. 교직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우울감 극복을 위한 심리방역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최권범기자

도교육청, 학교정보화지원센터 확대

시범 운영 결과 학교 정보업무경감 효과 ‘톡톡’

전남도교육청이 올해 학교정보화지원센터를 4개 교육지원청(고흥, 완도, 강진, 화순)에 추가로 확대해 운영한다.

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장성 및 장흥 교육지원청에서 시범운영된 학교정보화지원센터는 2020년 5개 교육지원청(여수, 순천, 나주, 해남, 신안)으로 확대한 데 이어 올해 4곳을 더 확대한다.

학교정보화지원센터는 각급학교 정보화기기에 대한 ▲자라나와 ▲통합유지관리 ▲정보업무컨설팅을 통해 일선 학교 현장의 정보업무 경감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화기기 운영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전산장비 통합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각종 장애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작은 학교의 정보화기기 활용도를 높여줬다. 또, 여수와 신안의 섬 학교를 주기적으로 방문해 정보업무를 지원하는 등 지역 별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운영계획을 수립 수행하면서 학교 현장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도교육청은 ‘운영 매뉴얼’을 제작 보급했으며, 매년 운영 성과보고회를 열어 우수사례 공유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권범기자

전남고 기숙사 새 교육공간 ‘탈바꿈’

전남고는 현재 폐지된 청운학사(이하 기숙사) 공간이 교과교실 구축을 위한 새로운 교육공간으로 탈바꿈되는 리모델링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전남고 기숙사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유휴 공간을 교내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교과교실 운영을 위한 새로운 교육 공간으로 바꾸기로 했다. 전남고는 지난해 6-9월 리모델링 대상 공간에 대한 전기, 통신, 소방 등 각종 내부 공사 및 인테리어를 실시했다. 이어 각종 교육 기자재 및 비품을 구입하고, 바로 교육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만반의 체비를 갖춰나가고 있다. /최권범기자

당신의 건강한 Action

꿈을 향해 내딛는 첫 발걸음,
가슴 벅찬 도전과 멈추지 않는 땀방울,
당신의 건강한 Action을 위해
실버랜드가 당신의 열정을 지켜가겠습니다.

안마의자 헬스기구 튼튼

태하런닝머신·다이나포스 – 웨이트기구 광주전남지사 헬스 & 실버랜드

목포 / 순천 / 여수 대리점 모집

대한민국 헬스기구 대표 브랜드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전문점

Goldone 504 상당물력	Goldone 502 상당물력	GOLDONE - 501 상당물력	AF-GOLDONE 17.1" 상당물력
AF-GOLDONE 303 상당물력	AF-GOLDONE 301 상당물력	ROBUS-TV10L C 상당물력	ROBUS-GM 상당물력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지번 : 백운동 644-33) ☎ 062)653-4141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183(주월동) ☎ 062)651-9944~3

CMYK